



정교회주보

제2462호

2024.03.0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9> 10세기에 설립된 조그라푸 수도원(사진)은 성산 북서쪽 해발 16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 그레고리오스의 이름으로 봉헌되었다. 14세기에 카탈로니아 해적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재건되었다. 도서관에는 126권의 그리스어 사본과 388권의 슬라브어 사본, 그리고 8,000권이 넘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수도원 내부에 8개, 외부에 8개의 성당이 있다.



탕자 주일

성 글레오니꼬스 순교자
성 테오도리토스 사제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220
 - 사도경 : 고린토전 6,12~20 (봉)418
 - 복음경 : 루가 15,11~32 13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시대를 사십니다. 복음경 이야기의 모든 단어는 나에게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장됩니다. 내가 기념하는 어떤 과거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식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내 삶에 속한 사건입니다.

구세주의 행위와 말씀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합니다. 사람이 되신 이 모든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세주의 행위와 말씀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시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르 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되찾은 양의 비유다.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다가 찾게 되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뻐할 것이다.’

백 마리의 양 떼를 돌보시는 주님께서서는 이성이 있는 아흔아홉의 천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비유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을 찾아 지상으로 오셨다. 주님은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간이 낙원에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죄 없이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셨고 이를 깨달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두 번째 비유로는 되찾은 은전의 비유이다.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다가 그 돈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성경말씀의 비유에서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상징된다. 여기에서 여자의 은전 열 닢은 결혼한 여인이 착용하는 목걸이로서 교회를 의미하며 잃어버린 동전 한 닢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비유이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등대로서 죄지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회개하여 교회와 함께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나누신다.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이다. ‘어떤 사

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버지는 가산을 나누어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아들은 자기가 받은 몫을 들고 먼 고향으로 떠나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 모두를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은 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들이 아니라 품팔이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먹고 즐기도록 잔치를 벌여주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인 자유 의지와 이성을 아담과 이브가 저버렸듯이 작은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아들이 잘못을 회개하며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꺼이 그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세속적인 삶에 빠져 수많은 죄를 지며 살고 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당신께 돌아올 때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느님,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한없이 사랑이 크신 하느님,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 주시는 주님께 회개와 성만찬 예배 참여를 통해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홀로코스트 (2)

존 브래디와 소수의 무명인들 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1954년, 가브릴리아 수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은 이 지상의 평범하고 물질적인 삶에 나를 묶어두었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었다...나는 갑자기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 온밤을 깨어 지새웠고, 그녀의 방은 그리스도의 성화에서 흘러나오는 눈부신 빛의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1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과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물리치료 일을 그만두었으며,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의 60세가 다 되었음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강한 느낌을 안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이슬람과 서방 사이의 증오와 반목이 고조되던 때에 그녀가 홀로 버스를 타고 요르단에서 이라크와 이란을 거쳐서 인도로 여행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보입니다.

당시 아브릴리아는 옷 한 벌과 자신이 읽던 유일한 책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했으며, 처음에 여러 진료소와 아슈람(ashram: 힌두교도들이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행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힌두교의 구루(guru: 힌두교, 시크교의 스승이나 지도자), 개신교의 선교사들과 자유로이 사귀었으며,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어떤 차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가까운 곳에 있던 그녀는 금식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정교인이 아닌 사람과는 결코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함께 무리를 지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홀로 또는 성당에서 기도합니다. ... 하지만 오십시오. 좋은 차 한 잔 나누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선교여행을 할 때, 어떤 개신교인이 성모님에 대해서 깔보고 험담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브릴리아 성녀는 곧바로 그를 한쪽으로 불러내서, “형제님, 죄송합니다만 내일부터는 제가 형제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은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모님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였고, 그녀의 선교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가난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처음 그녀를 불렀던 같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히말라야에서 11개월 동안 홀로 은둔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도생활에 대한 소명을 들었습니다. 1959년, 성녀는 베다니에 있는 성 라자로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3년간 예비수녀 기간을 보내고 나서 가브릴리아라는 이름으로 수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3월 9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안내

오는 3월 15일(금)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는 분들은 준비 및 숙소 예약을 위해, 각 성당 사무실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식

■ 로만 카브착 대신부 직함 수여

지난 주일(25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성찬예배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를 대신하여 로만 신부에게 지난 12년간의 사목과 봉직에 대한 감사와 공로로 ‘대신부(protopresbyter)’ 직함을 수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식

지난 24일(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빠른 전쟁 종식과 양국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식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주일학교 온라인 줌 모임

학생들을 위한 주일학교 모임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줌 링크 주소는 각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

성인의 가르침

마음이 불편했던 초보 수도사가 피민 사부를 찾아가 고백했다.

“사부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3년은 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구나.” 사부가 대답했다.

“그러면 3달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길구나.” 사부가 다시 대답했다.

“그대가 진실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결단한다면, 나는 3일 안에 선하신 하느님께서 그대를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네.”